

# 가임기 여성, 증상 없더라도 1년에 한번 정기검진 필수



## 건강 바로 알기 부인암

안태규

조선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에스트로겐은 사춘기 이후 폐경 전까지 가임 여성의 난소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으로 여성의 육체적 발육, 배란과 임신 등의 생식 내분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호르몬이다. 여성의 뇌에서 뼈까지 신체 거의 모든 부위에 작용한다.

대뇌안의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선자극호르몬에 의해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주로 작용하는 대상 기관은 자궁내막과 난소 그리고 유방조직이다. 이렇게 필수적이고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제대로 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호르몬에 의해 주 작용기관에 여러 종류의 부인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인암 종류 및 발생원인=부인암이란 여성의 생식기에 발생하는 암으로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을 말한다.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유방암이며 다음으로 갑상선암, 자궁체부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은 발생시점이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는 가임기이므로,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유방암이 일정부분 여성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자궁내막암은 자궁 경부에 발생하는 자궁암과 달리 자궁체 안에 발생하는 것으로, 원인은 아직 명확

자궁경부암·내막암·난소암·유방암 조기발견 중요...규칙적 초음파 검사 생리 끝난 후 3~5일 유방 자가검진 질 출혈 있다면 빨리 진단받아야

치 않으나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치가 높을 경우 걸릴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특정한 유전적인 성향을 가지는 여성의 경우는 난소암이 발생한 경우 유방암이 동반 발생할 가능성이 50%가 넘는 경우도 있어 이 연결고리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궁내막은 에스트로겐의 주 작용기관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경우, 증식증이 발생하거나 심하면 암성변화를 할 수도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에스트로겐이 주된 역할을 하는 세 기관에 대해 정기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궁내막암 검진=자궁내막암의 제일 큰 특징은 질출혈이다. 폐경 전에 어떠한 출혈이 보일 경우 반드시 부인과 진찰을 받아서 자궁경부암, 내막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궁내막암도 역시 조기 발견이 중요하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규칙적인 초음파가 필수이다.

유방암이 있는 경우 치료 과정에서 자궁내막암의 발생을 주의해야 하는데, 유방암 치료 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타목시펜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자궁내막암의 발생률이 1000명당 2명 정도로 무시할 수준이 아니므로, 치료 후 내막의 정기검진

도 매우 중요하다.

◇난소암 검진=난소암이 있는 경우 질출혈과 통증 같은 부인과 증상이 없으며, 난소 자체가 복강안에 떠있는 것 같이 존재하므로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는 한 발견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발견 당시에 상당히 진행돼 있고 그 예후도 매우 나쁘다. 하지만 이러한 악성 난소암도 조기에만 발견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난소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있으며, 만약 유방암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 위험도가 증가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유방암 검진=많은 여성들은 만져지는 종물, 유즙분비, 유방통이 있을 때 병원을 찾는다. 이러한 증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방 자가검진이며, 이는 유방암 검진의 가장 기본이다. 검진시기는 생리가 완전히 끝난 후 3~5일이 가장 좋다. 이때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가장 적은 시기이기 때문에 자가 검진 및 유방 촬영술을 시행하기 적합하다. 만약 폐경나이는 되지 않았으나 단순 자궁 적출술(난소가 남아 있는 경우)을 시행해 생리혈이 없는 경우에는 한 달 중에 유방의 크기가 가장 적어지는 날짜를 유방 자가 검진 날짜로 정하고 달마다 빠트리지 않고 시행하면 된다.

검사방법은 먼저 거울에 비추어 움푹 패인 곳이나 염증이 빨간 색깔변화가 있는지 또는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그 후 비누칠을 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쓰다듬다 보면 딱딱한 종물을 느낄 수 있으며, 액외부 또한 놓치지 말고 만져 봐야 한다. 자가 검진은 20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조선대병원 산부인과 안태규 교수가 매년 정기적으로 부인과 건강검진을 받는 여성과 상담하고 있다.

30대에는 유방 자가검진 및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우리나라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이 40~50대인 점을 감안, 40세부터는 정기적인 자가 검진, 초음파 검사, 유방촬영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년에 한번은 반드시 정기검진을=결론적으로 30~40대부터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자궁, 유방, 난소에 대한 검진을 동시에 받는다면 암의 조기발견은 물론 적절한 치료가 가능해져서 사망률을 줄이고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가임여성들은 일정기

간마다 한 번씩 자궁·유방·난소에 대한 정기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문의와 정기적으로 만나 상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종류의 암 중 하나가 발생했을 때 호르몬과 관련된 다른 장기에 대해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 치료 후에도 관계되는 장기에 대한 암 검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철저하고 지속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시엘병원 최범채 박사팀, 습관성 유산환자 유전인자 규명

차 의대 백광현 교수팀 공동...국제 SCI저널에 논문 게재 유산환자에 'HtrA4' 유전인자 적어 태반 발육장애 초래

시엘병원 난임연구소 최범채 박사팀과 차 의과대학교 백광현 교수팀은 지난 6월 'Cells' 논문 잡지에 습관성 유산환자들의 혈액과 융모막에서 일관적인 융모막과 비교해 더 적게 발현하는 두 유전자인 PGK1과 HtrA4를 처음으로 발견해 보고했다.

이들은 이번 논문에서는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통해 두 인자가 태반혈관형성과 배아발달(태반발달)에 관여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공동 연구팀은 이번 논문에서 'Htr-A4' 유전인자가 습관성 유산 환자에서는 정상환자군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는 태반신생혈관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태반발육장애를 초래해 유산을 일으킨다는 기전을 분자생물학적 연구로 입증했다.

과거에는 임신의 면역학적 기전 이해를 단순히 혈액검사상 특정인자가 유산환자에서 의미있게 높다는 식으로 진단마커를 사용해왔었는데, 이번 연

구결과는 세계최초로 임신 중 자궁내에서 태반을 매개로 신생혈관형성과 심폐를 분자생물학적 기법 활용한 유전자 편집을 통해 HtrA4유전자를 제거한 융모막 세포주를 만들어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융모막(태반)에서 HtrA4가 부족한 경우 태반에서 신생혈관 형성을 방해, 태반발육을 저해해 습관성유산이 초래된다는 기전을 규명했다.

시엘병원 최범채 병원장은 "임신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HtrA4 단백질이 습관성 환자에서 특별히 적게 발현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습관성 유산 환자를 이전보다 정확히



최범채



백광현

판단하는 기초를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습관성 유산 환자를 위해 진단키트 및 치료제 개발에 더욱 노력해 국제적으로 난임치료를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SCI저널인 'Biomedicine & Pharmacotherapy' (IF=7.419) 최신판에 게재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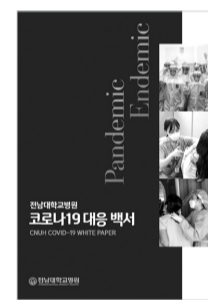
## '코로나' 3년 3개월간의 기록 전남대병원 '대응 백서' 발간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 3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정리한 '전남대학교병원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안영근 병원장의 발간사와 편집인인 박창환 진료부장-재난의료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서론 ▲방역 ▲선별진료소 ▲진료 ▲진료지원 ▲대응협의체 ▲연구분야 ▲코로나19 극복 현장의 목소리 등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백서는 지난 3년 3개월간 코로나19 대응현장의 기록을 담았다. 호남지역 감염병 대응의 최후 보루로서 전남대병원이 수행해 온 역할을 추후 새로운 감염병 관리의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구성했다. 또 코로나19 주요 동향과 방역·진료·정부협력 등 주요 주제에 따른 전남대병원 코로나19 대응 타임라인을 정리해 수록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행 동안 감염병 대응에



관련돼 지역거점병원으로서 필수로 부문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작동 체계를 구성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담겼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과제 내용도 수록됐다.

감염병 대응 및 확진 환자 치료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전남대병원은 코로나19 발생부터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까지 치열했던 흔적과 과정 등 코로나19의 모든 것을 담았다.

안영근 병원장은 "코로나19 백서에는 치열했던 3년간의 코로나19 대응과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며 "어려움을 이겨낸 전남대병원의 값진 경험은 최고의 역량이자 크나큰 자선으로 남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